

■ 우리 시대 스테디셀러 얼마나 팔렸나



‘난쏘공’ 90만·연금술사 140만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정래 장편소설 '태백산맥'이 최근 200쇄를 돌파, 특집판을 발간함에 따라 문학출판계의 대표적 스테디셀러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주목을 끄는 작품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성과 힘 펴냄).

일명 '난쏘공'으로 불리는 이 작품은 1975년 '문학사상' 12월호에 단권 '난쏘공'으로 발표되었다가 1978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연작 12편을 엮어 첫선을 보인 작품이다.

"20세기 한국문학사 100대 소설"에서 최고의 문제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난쏘공'은 2000년 이성과 힘에서 개정판으로 발간돼 2005년 단행본 최초 200쇄, 누적 판매부수 90만 권이라는 한국문학사에서 유례없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간한 최인훈의 '광장'과 고(故)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도 주목된다.

문학과 지성사에 따르면 '광장'은 현재까지 127쇄가 발간되었으며 56만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고(故) 이청준의 대표작 '당신들의 천국'은 116쇄, 35만여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문인으로는 소설가 공지영이 단연 돋보인다. 그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푸른숲 펴냄)

만부 이상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 조정래의 '아리랑'(해냄 펴냄),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민음사 펴냄),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창작과 비평 펴냄) 등도 주목받고 있다.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116쇄 발간 학습만화 'Why?' 시리즈 2천만부나

은 2007년 발간 이후 꾸준히 팔려 베스트셀러가 됐고 현재 170쇄가 발간된 상태로 88만여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산문집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오픈하우스 펴냄)도 베스트셀러 에세이 부문 톱순위에 올랐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간한 최인훈의 '광장'과 고(故)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도 주목된다.

문학과 지성사에 따르면 '광장'은 현재까지 127쇄가 발간되었으며 56만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안도현의 '언어'(문학동네 펴냄)는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까지 잔잔한 감동을 주며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다. 현재 109쇄가 나와 있는 상태며 출간 이후 지금까지 매년 6

외국 작품으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문학사상 펴냄)와 최근까지 인기가 식지않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문학동네 펴냄),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황수'(열린책들 펴냄) 등이 주목된다.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의 한없는 상실과 재생을 애절함과 감동으로 담담하게 그린 장편소설 '상실의 시대'는 1989년 발간 이후 청장년층에 새로운 감성을 불러 일으켜 '필독서'로 자리잡았다. 3권 58쇄

만부 이상 판매되고 있다. '연금술사'는 최근까지 49쇄를 발간하고 온 오프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 순위를 점하며 140만부 이상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청소년 출판 분야에서는 학습만화와 고전 명작시리즈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어린이 대상 과학학습만화 'Why?'(50권·예림당 펴냄) 시리즈가 최근 2천만부 판매를 넘어섰다.

'Why?'시리즈는 이미 중국과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저작권이 수출됐으며 이밖에 미주와 인도네시아, 일본과도 저작권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7권까지 나온 '마법천자문'(아울북 펴냄),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시리즈'(문학수첩 펴냄), 아동 청소년 인기서적인 만화본 '그리스로마신화'(가나출판사 펴냄) 등도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0 광주비엔날레도 외국인이 지휘?

외국인 예술총감독 사실상 확정...10일 최종 발표

오는 2010년에 열리는 제8회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에 외국인이 선임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광주비엔날레는 오쿠이 엔위저를 총감독으로 앉혀, 해외 유명 비엔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의 '외국인 카드'가 또 한번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재단은 3일 "최근 총감독 선정 자문위원회에서 후보를 압축, 오는 10일 아시아의 의결을 통해 총감독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착연구실의 추천을 받은 후보군에는 외국인 3명, 내국인 1명이 포함됐는데, 현재 선정 자문위원회에서 외국인 주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사실상 최종 후보가 확정된 상태이다.

이처럼 후보군에 외국인이 대거 포함된 것은 지난 2008 광주비엔날레에서 외국인 총감독 효과를 톡톡히 누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세계 미술계의 눈은 광주로 쏠렸다. 케이 소피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감독 등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미술계 인사 70여명이 광주를 찾았다.

이는 카셀 도큐멘타, 세비아비엔날레, 요하네스 버그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을 지낸 오쿠이의 지명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단은 "국내 미술계의 반발도 있지만 후발 주자인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5대 미술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감독의 역할도 중요

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감독 선임의 가장 큰 특징은 '신장이 파문'으로 불거진 총감독 후보 선출방식과 절차상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재단은 지난해 정책연구실을 신설해 감독 후보를 찾고, 검증한 뒤 후보군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겼다. 추천받은 후보군은 영국 테이트 모던 갤러리 비센터 토볼로프관장 등 국내외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총감독 선정 자문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최종 1인으로 압축됐다.

과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술총감독 선정위원회 추천을 받아 후보를 찾던 관행에서 벗어나 재단이 직접 국제 인력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후보 검증을 하기 위한 절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미술품 사세요”

에이옥션 온라인 경매

전문 미술품 경매 회사인 에이옥션(대표 서정만)이 오는 6~12일까지 온라인 경매(http://www.a-auction.co.kr)를 실시한다.

이번 경매에는 한국화, 서양화, 고서화, 고가구, 조각 등 130점이 출품된다. 대부분 작품의 시작가가 100만원대

이하이고, 현대미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서화가 다량 출품돼 컬렉터들이 큰 부담 없이 작품을 구할 수 있다.

대표작으로는 이우환, 박승우, 이용우, 황성하, 김응원, 이응로, 이정직, 이희수, 허백련, 최성중, 임직순, 양달석, 황영성, 강연균, 김대운, 최영훈, 고화환 화백 등이다. 문의 063-285-700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깊고 중후한 대금의 매력

5일 목요일국악상설공연 '여울림' 초청무대

깊고 중후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대금의 매력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국악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빛고를 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일국악상설공연'이 '대금 연주단 '여울림'(단장 채광자) 초청무대를 갖는다. 5

일 오후 7시 빛고를국악전수관 공연장. '여울림'은 이날 공연에서 '원장현류 대금 산조', '서용석류 대금산조', '허튼가락' 등을 선사하며 대금과 가야금이 협연하는 '강마음'을 연주한다.

지난 2007년 지역 대금 연주자들이

의기투합해 꾸린 여울림은 현재 1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무대에는 김태희·김희동 등이 출연한다. 가야금 연주자 김경희·김미혜씨가 함께 협연한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성희씨 '바리데기' 주제 개인전

10일까지 일곡갤러리

11~17일 서울 라이트

박성희씨가 광주시 북구 일곡갤러리(10일까지)와 서울시 인사동 갤러리라이트(11~17일)에서 '바리데기'를 주제로 잇따라 개인전을 갖는다.

박씨는 이번 전시에서 현대 여성의 삶을 바리데기 신화에 빗대 재해석한 신작을 선보인다. 가족을 위해 집안 일을 하고, 희생하는 여성의 모습이

망자를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바리데기와 닮았다는 것이다.

도드라진 광대뼈, 뭉툭한 코를 통해 삶에 지친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 꽃과 나무, 아이들이 등장시켜 세상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박씨는 현재 한국미술협회, 전업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510-163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바리데기'

'나는 여기가 좋다' 등 3월 읽을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는 '3월의 읽을만한 책'으로 여수 거문도 출신 중견작가 한창훈씨의 소설집 '나는 여기가 좋다'(문학동네 펴냄)를 비롯한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목록에는 '정직한 법조인 링컨'(마크 E.스타이너 지음)과 '화염조산'(글항리 펴냄), '유동하는 공포'(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녹색희망, 농업의 미래'(임삼규 지음) 등이 포함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허백련 '묵죽도'



대금에서 부는바람

A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씨너스전대, 하미시네마, 제일시네마) with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 Includes a '영화안내' header and a 'movies 인기영화' banner.